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현상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성경의 현상'. 다음 장이 28장이므로 27장으로 보인다. 본문은 대략 287–293쪽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성경 무오성에 맞서는 두 반론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성경은 구원만 말하는 책”이라는 반론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읽어 보면 오류가 보인다”는 반론이다. 첫째 반론에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답한다. 구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반론은 성경의 '겉모습(현상)'에서 교리를 세우자는 귀납적 방법이다. 이에 대해 프레임은 난제는 모든 교리에 있으며,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답한다. 그렇다고 난제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인간 이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연구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난제가 생기는 두 원인인 유한성과 죄를 짚는다. 그리고 비평 학계의 오만에 오만으로 맞서지 말고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겸손으로 마무리한다.

📜 절별 정리

📜 1. 두 가지 반대, 그리고 '성경은 구원만 말한다'는 반론

무오성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틀린 것이 없다는 믿음이다. 프레임은 이 믿음에 대한 주요 반대를 두 가지로 꼽는다. 무오성이 성경의 목적을 오해한다는 반대, 그리고 성경의 실제 모습(현상)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다. 목적 반론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구원을 알려 주려고 쓰였지 역사·지리·과학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영역에 오류가 있어도 상관없다. 프레임은 이 문제를

- 성경은 구원의 전제인 하나님·창조·섭리를 말한다. 이것들은 세상 전체와 삶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성경은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도 주장한다.
- 성경의 구원은 삶과 생각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은 실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역사·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 이야기와 맞아야 한다.
-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다. 하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골라낼 수 없다. 성경이 주로 다루는 주제를 분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 안에 가둘 권리는 없다.

결론적으로 '무오한 구원 영역'과 '오류 가능한 세속 영역'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일은 불가능하다.

1. 무오성에 대한 두 반론: 목적과 현상
2. 성경은 거룩/세속을 나누지 않는다
3. 창조·섭리는 세상 전체를 다룬다
4. 구원은 실제 역사 속 사건이다
5. 말씀의 영역을 우리가 고를 수 없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직접 인용 없음)	저자는 이 절에서 장절을 달지 않는다. 성경 근거는 24·25·31장으로 미룬다.

📜 2. '성경의 현상'과 귀납적 방법

'현상'은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와, 경험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구분했다. 번역서는 후자를 '가상계'라고 옮겼는데, 흔히 '본체계'라고 부른다. 오늘날 많은 독자에게 성경은 오류가 많은 책처럼 보인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만 보고 성경론을 세우지 말고, 성경의 실제 모습도 따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오성이라는

내는 방법이고, 귀납적 접근은 개별 본문을 조사해 결론을 모으는 방법이다.
프레임은 성경에 '난제', 곧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의된 귀납적 방법은 성경의 성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1. 현상 =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2. 현상에서 교리를 세우자 = 귀납적 접근
3. 성경의 자기 증언에서 = 연역적 접근(26장)
4. 난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5. 그러나 귀납적 방법은 결함이 있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직접 인용 없음)	방법론을 소개하는 절이라 구절 인용이 없다.

📜 3. 난제는 모든 교리에 있다 — 아브라함의 믿음

프레임은 먼저 난제가 무오성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부딪쳐 보인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고, 영원하시면서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동시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신다. 그래도 이런 난제 때문에 이 교리들을 버리자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본보기가 아브라함이다. 백 세 가까운 남자와 출산할 나이를 훨씬 넘긴 여자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약속은 사람의 눈에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로마서 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

- 약속을 문제와 견주어 보고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 판단을 보류하지 않았다.
- 문제가 풀릴 때까지 순종을 미루지 않았다.
- 문제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었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의 본보기로 내놓는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약속과 이삭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학의 올바른 방법은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1. 삼위일체·그리스도론에도 난제가 있다
2. 난제 때문에 교리를 버리지 않는다
3. 신앙 =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믿는 것
4. 아브라함은 판단을 보류하지 않았다
5. 해결이 아니라 신뢰가 출발점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4:19-21 > 19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모범
로마서 4:22 >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 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
창세기 12:10-20 > 10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각주)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예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창세기 16장 [1]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각주) 하갈 사건. 원문 표기 '16-14'는 오식으로 보이며, 정확한 범위는 원서 확인 필요
창세기 20:1-8 [1]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	(각주)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아내를 누이라 한 일
창세기 22:1-19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각주) 이삭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고린도후서 5:7 >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자가 장절 없이 빌려 쓴 표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함”

📜 4. 성경의 자기 주장은 분명하다 — 그래도 현상은 연구한다

프레임은 귀납적 방법이 정당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상태에서 본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처음 가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앞 장들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과 이 땅의 삶에 필요한 최고 권위의 인격적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려 하시기에 그 말씀이 기록된 형태를 띤다. 이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므로, 본문의 문제를 근거로 성경의 주장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상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무시할 수도 없다.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다.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은 우리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깊이 연구해야 하고, 가르치는 이들과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

1. 성경의 주장이 불확실하면 다시 볼 일
2. 그러나 그 주장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3. 하나님은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4. 현상을 무시함 = 말씀을 무시함
5. 난제 = 우리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신호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시편 1:2 >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 본문의 세부(현상)도 연구 대상이다.
신명기 8:3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마태복음 4:4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신명기 8:3을 인용하심. 같은 원리를 확인한다.

📜 5. 자율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구하라

난제를 연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적 자율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적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이성이 혼자서 진리를 판정하겠다는 태도다(3–7장).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으로 인격적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므로 성경 연구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 “모든 문제가 풀려야 믿겠다”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이 문제를 보는 방식을 정한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다르게 보인다. 문제는 신앙을 시험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증거와 비교하면 아주 작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 뿐이다. 반면 하나님은 3,000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참됨을 증명해 오셨다. 직접 음성, 선지자와 사도의 선포,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식이다. 이 계시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빚어 왔다. 그렇게 빚어진 정신에게 성경에 대한 공격은 설득력이 없다. 그 공격이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는 거대한 무게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전제하고 연구
3. “다 풀려야 믿는다”는 요구는 거부
4. 말씀이 문제를 보는 눈을 정한다
5. 3,000년 하나님 증거의 무게가 더 크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4:19-21 19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해결보다 신뢰가 먼저였던 사례를 다시 들어 “먼저 다 풀어라”는 요구를 반박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척도가 되어야 한다.”

📜 6. 난제의 첫째 원인: 유한성 — 겸손하게 읽기

프레임은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우리의 유한성과 죄다. 먼저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인지, 영원하시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지, 선하시면서 악을 허락하시는지, 주권적이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또 우리는 자연과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세계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성경의 배경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부족 사회와 왕정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이야기 밑에 깔린 관습, 시가서의 성격, 문학 관습이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읽어야 한다. 프레임은 과학자의 예를 든다. 과학자는 믿는 이론과 맞지 않아 보이는 현상을 만나도, 이론의 증거가 충분하면 언젠가 둘이 조화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가정한다. 지금 그 방법을 몰라도 그렇다.

3. 고대 문화·문학 관습은 낯설다
4. “모르겠다”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다
5. 과학자도 이론과 안 맞는 현상을 안고 간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직접 인용 없음)	저자는 이 절에서 구절을 달지 않는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 7. 난제의 둘째 원인: 죄 — 비평 학계의 오만과 신자의 겸손

로마서 1장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연계시를 막고 진리를 거짓과 바꾼다고 말한다. 자연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 누구에게나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성령께서 시야를 바꾸지 않으시면 죄인은 성경의 진리도 억누른다. 신자는 성령으로 이 죄악된 왜곡을 이길 수단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 죄가 없지 않고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사탄은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불신앙으로도 유혹하는데, 불신앙 자체가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신자도 때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자유주의 학문에 권위를 넘겨준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사람이 쓴 책처럼만 읽게 한다. 그리고 기적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도, 하나님이 말과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자율적 학문'은 자주 오만했다. 예전에는 '현대 학문의 확실한 결과'라는 말을 즐겨 썼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실한 결과' 대부분이 의심받는다. 프레임은 창세기 일부를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는 주장, 복음서의 예수 말씀이 그 복음서가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배경에서 생겼다는 주장을 예로 든다. 루이스는 불트만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불트만은 예수의 인격이 바울과 요한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루이스가 보기에 그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혼자 못 본다. 루이스는 비평가들이 아주 작은 양치식물 포자는 본다면서 대낮에 바로 앞에 있는 코끼리는 못

본다는 과장된 자신감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 역시 그 오만에 오만으로 맞서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은혜로 그 유혹을 피해야 하며, 그것은 곧 난해한 문제 앞에서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뜻이다.

1. 죄인은 진리를 막고 억누른다
2. 신자도 불신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3. 자유주의는 기적·예언·말씀 계시를 부정
4. '확실한 결과'는 이제 많이 무너졌다
5. 오만에 오만으로 답하지 말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1:18, 1:25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인이 진리를 막고 거짓과 바꾼다. 저자는 '로마서 1장'으로만 언급한다.
누가복음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마음. 문제는 증거보다 마음에 있다.
요한복음 5:37-40 37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께 오지 않는 사람들. 연구만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 마음에 덮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무오성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틀린 것이 없다는 믿음.

성경의 현상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도 포함한다.

난제
성경 안에서 서로 어긋나거나 틀린 것처럼 보이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귀납적 접근
개별 본문들을 조사해 결론을 모아 가는 방법. 여기서는 현상에서 성경론을 세우자는 입장을 말한다.

연역적 접근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에서 결론(무오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

현상계/본체계
칸트의 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경험 너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가리킨다. 번역서는 본체계를 '가상계'로 옮겼다.

지적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이성이 혼자 진리를 판정하겠다는 태도.

전제
생각을 시작할 때 이미 깔고 들어가는 가장 밑바닥의 믿음.

자연계시
창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격적 말씀

프레임의 핵심 개념. 성경은 정보 묶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권위 있게 뜻을 전하고, 함께하시며 건네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구원 영역과 세속 영역을 나눠 일부만 무오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성경의 현상에서 출발해 성경의 자기 주장을 판정하는 귀납적 방법은 결함이 있다.
- 신앙은 문제가 다 풀린 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믿는 것이다(로마서 4장).
- 난제는 유한성과 죄에서 생기므로, 믿음 안에서 연구하되 이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비평의 오만에 오만으로 답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르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5편 · 무오성 · '틀림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